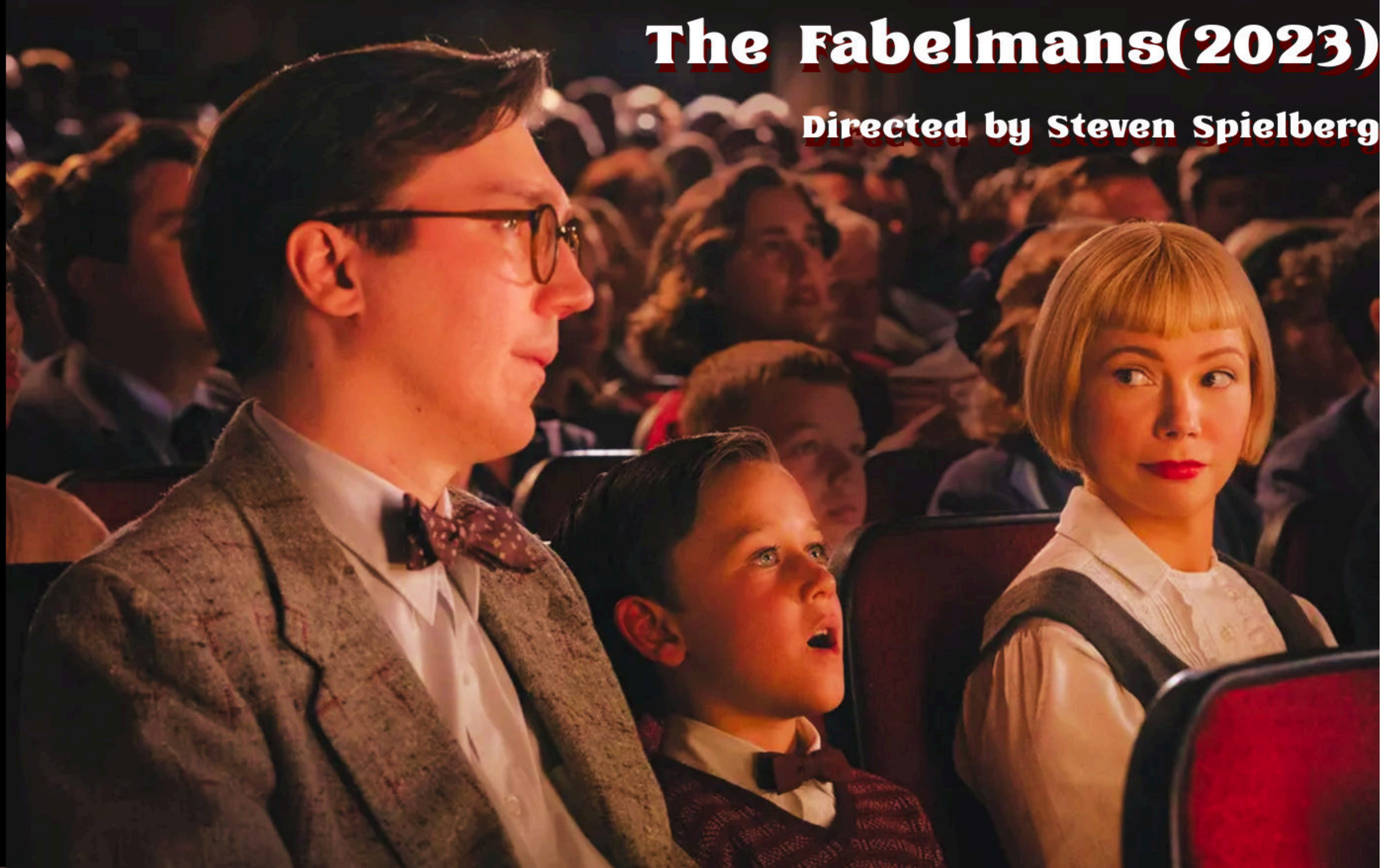
영화와 삶
2차시

The Fabelmans(2023)

Directed by Steven Spielberg



스티븐 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1946년 12월 18일
79세

1959년 데뷔 ~
영화감독, 미국 국적

1973년 상페리앙지 판타스틱 필름 페스티벌 대상
1974년 제27회 칸 영화제 각본상
1977년 제3회 새턴어워즈 최우수감독상
1981년 제7회 새턴어워즈 최우수판타지영화상
1981년 제7회 새턴어워즈 최우수감독상
1981년 제2회 보스턴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1년 시네마준포어워즈 외국어영화상
1981년 주피터어워즈 외국영화상
1982년 주피터어워즈 외국어영화상
1982년 제8회 새턴어워즈 최우수SF영화상
1982년 시네마준포어워즈 외국어영화상
1982년 시네마준포어워즈 리더스 초이스상
1982년 아메리칸무비어워즈 감독상
1982년 제3회 보스턴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2년 제8회 LA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2년 다비디 도나텔로 어워즈 외국감독상
1982년 캔자스시티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2년 센트조디어워즈 메이저 펠리큐어 인판틸상
1983년 쇼웨스트어워즈 올해의 감독상
1983년 제17회 전미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3년 포토그레프스 디 플래터 어워즈 외국어영화상
1983년 블루리본어워즈 외국어영화상
1983년 제40회 골든글로브시상식 드라마부문 작품상
1983년 헤이시티 푸다 씨어티리컬 어워즈 올해의 남성상
1984년 주피터어워즈 외국영화상
1984년 지포니필름페스티벌 작품상
1985년 다비디 디 도나텔로 외국프로듀서상
1985년 캔자스시티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6년 제38회 미국감독조합상 영화부문 감독상
1986년 제39회 영국아카데미시상식 아카데미 팔로우 쉽상
1987년 제58회 미국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87년 제59회 아카데미시상식 어빙 탤버그상
1987년 블루리본어워즈 외국어영화상
1987년 크리스토퍼어워즈 작품상
1988년 캔자스시티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93년 주피터어워즈 외국감독상
1993년 주피터어워즈 외국영화상
1993년 제19회 새턴어워즈 최우수SF영화상
1993년 제6회 시카고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93년 제6회 시카고비평가협회상 작품상
1994년 제51회 골든글로브시상식 감독상
1994년 제28회 전미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94년 제46회 미국감독조합상 영화부문 감독상
1994년 제47회 영국아카데미시상식 데이빗 린상
1994년 제47회 영국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
1994년 제66회 아카데미시상식 감독상
1994년 제66회 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
1994년 주피터어워즈 외국감독상
1994년 주피터어워즈 외국영화상
1995년 제15회 런던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98년 제24회 새턴어워즈 최우수 액션, 모험상
1998년 제24회 LA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99년 제56회 골든글로브시상식 감독상
1999년 제56회 골든글로브시상식 드라마부문 작품상
1999년 제19회 런던비평가협회상 작품상
1999년 제4회 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 감독상
1999년 제51회 미국감독조합상 영화부문 감독상
1999년 제71회 아카데미시상식 감독상
2000년 제52회 미국감독조합상 공로상
2001년 대영제국 훈장 명예 2등급(honorary KBE)
2001년 제27회 새턴어워즈 최우수각본상
2001년 제27회 새턴어워즈 최우수SF영화상
2002년 제28회 새턴어워즈 최우수감독상
2002년 제28회 새턴어워즈 최우수SF영화상
2003년 제8회 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 감독상
2003년 제29회 새턴어워즈 최우수 DVD/BD 컬렉션상
2003년 이탈리아 골든글로브 명예상(Cavaliere di Gran Croce OMRI)
2005년 제10회 홍콩금자탑상 10대 외국어영화상
2009년 제66회 골든글로브시상식 평생공로상
2012년 제69회 골든글로브시상식 장편애니메이션상
2013년 피비시 제작주식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
2017년 전미비평가위원회 올해의 전미비평가상

Steven Spielberg's Filmography









1970~80

블록버스터의 탄생
/ 모험







1990

오락영화와
역사영화









2000~10

장르의 확장
/ 인간과 사회







2020

거장의 원점으로
돌아가기


[파벨만스] 1차 예고편
CJ ENM Movie
영화의 모든 순간과
사랑에 빠진다
★★★★★
아카데미 7개 부문 노미네이트
골든 글로브 작품상 • 감독상 수상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
25
올해 최고의 영화
- New York Post -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
파벨만스
3월 22일 극장 개봉
1차 예고편
Watch on YouTube


[파벨만스] 2차 예고편
CJ ENM Movie
스티븐 스필버그,
그 자체가 영화다
- From the Front Row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
파벨만스
3월 22일 극장 개봉
2차 예고편
Watch on YouTube

파벨만스 줄거리 ① 영화와 처음 만난 아이 — '보는 것'에서 '찍는 것'으로



버트 파벨만

새미의 아버지, 엔지니어

기술 · 과학 · 이성

"영화는 정지된 사진들이 빠르게 이어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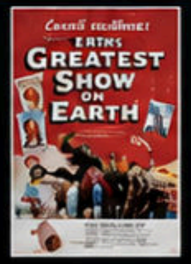


미치 파벨만

새미의 어머니, 피아니스트

예술 · 감정 · 상상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



새미의 첫 사건

1952년, 뉴저지, 어린 새미는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영화관을 찾는다.
첫 영화 《지상 최대의 쇼》에서 기차 충돌 장면을 본 새미는 강렬한 충격을 받는다.



보는 것에서 찍는 것으로

① 실제 사건

영화 속에서 기차가 충돌한다.



② 새미의 시선

수많은 장면 중 새미는 기차 충돌에 유독 사로잡힌다.



③ 새미의 영화

집에 돌아온 새미는 장난감 기차를 재현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8mm 카메라에 직접 담기 시작한다.





보는 아이에서, 찍는 아이로

무서운 장면도 카메라로 찍으면 다시 보고, 반복하고, 통제할 수 있다.

★ 무엇을 보았는지가 새미의 첫 영화를 만들었다.

진정한 천재는

뚫린 구멍에서도 뭘 만듦



파벨만스 줄거리 ② 영화를 만드는 소년



친구들과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새미

- ★ 서부극 촬영
- ★ 전쟁영화 촬영
- ★ 촬영과 연출에 몰입하는 소년

시간이 흐르고, 새미는 친구들을 데리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



직접 효과를 만드는 소년

- ★ 필름에 구멍을 뚫어 충격 효과 구현
- ★ 카메라와 편집을 스스로 익힘
- ★ 현실을 영화적으로 바꾸는 시도

충격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필름에 적접 구멍을 뚫기도 한다.

새미의 성장 과정

① **촬영** — 현실을 카메라에 담는다.

② **효과** — 상상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③ **창조** — 현실을 원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 **영화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

새미에게 영화는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여내는 방법이 된다.

파벨만스 줄거리 ③ 행복한 가족을 찍었는데, 다른 것이 보였다

가족과 친구들과 캠핑



새미는 카메라로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을 담는다.
그에게는 행복한 가족의 추억일 뿐이다.

미치의 춤을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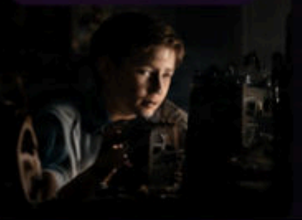
자동차 불빛 앞에서 춤추는 미치를
새미는 카메라에 담는다.

엄마를 위한 캠핑 영화 부탁



외할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버트는 새미에게 캠핑 영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새미의 시선



새미는 필름을 하나하나 보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장면을 연결하며
편집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장면들

미치와 베니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새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사건은 이미 있었다.



캠핑장에서
미치와 베니의 관계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



새미는 그때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발견하는 시선은 나중에 생겼다.



카메라로 다시
바라보는 순간,
처음으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이 캠핑장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미는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로 다시 바라보는 순간,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합니다.

파벨만스 줄거리 ④ 가족과 영화 사이에서 갈라지기 시작한다

1



보리스의 예언

"가족은 사랑,
예술은 마약"

보리스는 새미가
가족과 예술 사이에서
흔들릴 것을 알아본다.

2





3 영화가 보여준 것

영화는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진실도 보여준다.

새미는 한동안
영화를 멀리하려 한다.



4 비밀을 지키기로 하다

미치는 죄책감에 무너지고,
새미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예술은 진실을 비춘다.

새미는 처음으로 영화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파벨만스 줄거리 ⑤ 캘리포니아 – 카메라를 내려놓은 소년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사한다.
베니는 함께 오지 않는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상처



새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건과 채드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무너지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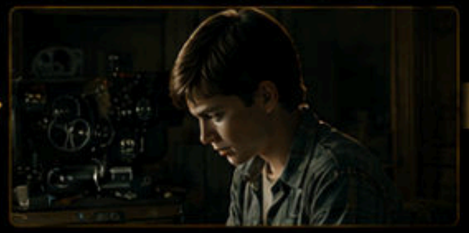
부모의 관계도 점점 무너지고,
새미는 **영화에서 멀어지기로 한다.**

학교에서의 갈등



새미는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영화에서 멀어지는 새미



영화를 찍던 새미는
카메라를 내려놓는다.

부모의 우울과 불안



미치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버트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진다.

아버지와의 충돌



아버지와도 심하게 다투며
갈등이 커진다.

영화와의 거리



새미는 영화를 멀리하며
가족보다 자신을 닫아둔다.

Ditch Day 촬영

여자친구 모니카의 권유로
학교의 'Ditch Day' 행사를
촬영하게 된다.
새미는 다시 카메라를 든다.







핵심 포인트

새미를 괴롭히는 학생은
로건과 채드이고,
새미는 그들을
카메라로 찍게 된다.

파벨만스 줄거리 ⑥ 로건을 영웅으로 만든 영화

모니카와 헤어진 새미는 졸업 파티에서 자신이 촬영한 〈Ditch Day〉 영화를 상영한다.

졸업 파티에서
〈Ditch Day〉 상영



채드



우스꽝스럽게 찍힘
→ 학생들의 웃음

로건



멋지고 당당하게 찍힘
→ 학생들의 환호

현실의 로건



- 새미를 괴롭힘
-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조롱함
-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존재

촬영 · 선택 · 편집



영화 속 로건



- 햇빛 속을 달림
- 뛰어난 운동 농력
-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
- 학생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



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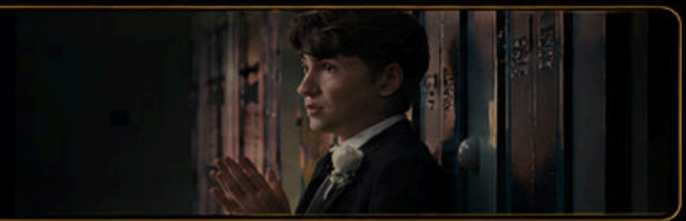
"왜 나를 그렇게 찍었어?"
영화 속 나는 실제 나보다 너무 멋있어."

로건은 변했나요?

아니요.
변한 것은 로건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새미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찍고 싶었던 것 같아."





캠핑 영상

보이지 않던 것을 발견했다

미치와 베니의 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 새미의 시선이 발견함

발견하는 시선 ⟷ 만들어내는 시선

Ditch Day 영상

보이지 않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로건은 그대로였다.
→ 새미의 시선이 영웅으로 만듦



카메라는 현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현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

파벨만스 줄거리 ⑦ 가족은 무너지고, 새미는 영화를 선택한다

무너진 가족, 선택된 꿈

부모의 이혼

결국 부모는 이혼하고,
미치는 베니에게 간다.

미치의 말

미치는 새미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버트의 인정

마지막에는 아버지 버트도
새미의 꿈을 인정한다.

미치의 선택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으니,
너도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미치가 새미에게 남긴 말

1년 뒤, 할리우드의 새미



- 버트와 함께 할리우드로 이사함
- 편지와 사진을 보며 가족의 변화를 마주함
- 영화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다시 확인함

가족은 무너졌지만, 새미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새미는 결국 영화를 선택한다.

취미로 여겨지던 영화는 이제 새미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된다.


행운을 빈다! [파벨만스] 존 포드의 지평선 철학 영상
CJ ENM Movie
선배 감독의 참교육
존 포드의 지평선 철학 영상
Watch on YouTube

파벨만스 줄거리 ⑧ 존 포드

화면의 끝에서 배우는 영화의 원리

01 만남의 시작

- 새미는 우연히 전설적인 감독 존 포드를 만나게 된다.
- 존 포드는 긴 설명 대신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질문한다.
- 이 만남은 영화 전체의 마지막 교훈이 된다.





02 핵심 대화 – 영화의 원리



존 포드 “지평선이 어디 있지?

새미 “아래쪽입니다.”



존 포드 “여기는?”

새미 “위쪽입니다.”

> “지평선이 아래에 있으면 흥미롭다.
> 위에 있어도 흥미롭다.
> 가운데 있으면 지루하다.”

03 왜 중요한가

존 포드는 영화 이론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원리로 ‘구도와 시선’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새미는 이 짧은 만남에서 영화의 본질을 배운다.

04 마지막 장면 – 교훈의 실천

- 새미는 신이 나서 스튜디오 밖으로 걸어간다.
-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순간, 카메라가 움직이며 지평선을 아래로 내린다.
- 영화는 존 포드의 말을 스스로 실천하며 끝난다.



좋은 구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게 할지 결정하는 시선의 문제다.

Critic's Movie review

박평식 | ★★★☆ | 흥겹고 아프게 꿈을 낚은, 놀랍도록 겸손한 회고담

허남웅 | ★★★★ | 누가 영화란 무엇인가, 묻거든 스필버그 작품을 보여줘라

이용철 | ★★★★☆ | 빛이 애정으로 화해 몸을 감싼다

김혜리 | ★★★★☆ | 영화와 인생은 다르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엔…

김철홍 | ★★★★☆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조현나 | ★★★★☆ | '우리'의 상흔마저 포용하는 영화라는 소명, 영화라는 영원의 꿈

이우빈 | ★★★★★ | 조건적 애정을 넘어선 무조건적 믿음만이 영화를 지탱한다.

이동진 | ★★★★★ |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이동진 ★★★★★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시선

명사

1.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2.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건

명사

1.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일[1])
2.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특별한 일.
3. 문학 작품에서, 인물의 행동을 야기하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일.



2차시: 오늘의 활동

오늘은 설문을 통해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를 장면과 일상 사례에 적용합니다.

네이버폼 제출
naver.me/F93snFhP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핵심: 같은 현실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사건이 된다.

① 장면 선택
캠핑 영상 · 로건 영상
존 포드 · 기타

→

② 장면 내용
무슨 일이 있었는지
2~3문장 정리

→

③ 시선 분석
어떻게 바라보고
보여주었나요?

→

④ 현실 사례
사진·뉴스·SNS에서
다르게 보인 경험

작성 기준
- 3·4번: 장면을 근거로 2~3문장 이상
- 5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중심으로 5문장 이상
- 6번: 일상 사례 + 다르게 보인 이유까지 쓰기

제출 전 확인: 줄거리 요약만 하지 말고, 장면 속 “시선의 역할”을 반드시 설명하세요.

11시까지 완성해주세요! 11시에 수업 재개합니다

3차시 활동 안내

오늘은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함께 읽고 정리합니다.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핵심: 같은 현실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

① 제출 내용 함께 보기

학생들이 작성한 답변 중
몇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② 장면 다시 떠올리기

캠핑 영상 · 로건 영상 ·
존 포드 장면을
다시 연결합니다

③ 시선의 역할 정리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생각합니다

④ 영화의 의미 마무리

〈파벨만스〉가 말하는
영화의 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진행 방식

- 직접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교사가 몇 개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 함께 읽고 짧게 의견을 덧붙이면 됩니다

✦ 부담 없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발표가 아니라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정리해 봅시다!

새미가 편집하며 발견한 캠핑 영상

이 장면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10대 소년이었던 새미가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와 믿었던 삼촌의 외도를 꿈꾸고 아끼던 영화로 목격함으로 내가 좋아하는 무엇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직접 몸소 느끼는 장면입니다

새미가 가족과 보낸 캠핑 촬영을 편집하다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사건

외할머니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크게 슬퍼하자 아버지는 주인공에게 가족들과 캠핑을 하는 동안에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에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새미는 영상을 편집하는 도중 아버지의 친구와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진다.

새미는 가족이 함께 캠핑을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을 편집실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갔던 즐거운 기억을 정리하려고 필름을 돌려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엄마 미치가 아빠 친구인 베니를 바라보는 눈빛과 웃는 표정 손을 잡는 듯한 몸짓 같은 게 계속 눈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들이었는데 새미가 필름을 여러 번 돌려보고 확대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분명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결국 그냥 즐거운 여행 기록이라고만 생각했던 필름이 편집대 위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장면으로 바뀌어버린다. 새미는 그 순간 자기가 발견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엄마의 진짜 감정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새미는 가족들과 다 함께 다녀온 캠핑 야외 영상을 편집하던 중, 엄마와 아빠의 친구 베니 삼촌의 뜻밖의 순간들을 발견합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서로를 바라보며 특별한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가족 여행인 줄로만 알았던 캠핑 현장 이면에 숨겨진 부모님의 관계와 비밀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새미가 편집하며 발견한 캠핑 영상

필름을 편집하며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부모님과 베니 삼촌의 의도적으로 재배치하지 않았다면 그 캠핑은 평범한 가족 여행으로 끝났을거다 카메라라는 관찰자의 시선과 다르게 구성하는 편집이라는 선택이 존재했기에 인물 간의 비밀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고 부모님의 비극적 관계로 새로운 사건으로 탈바꿈함.

만약 주인공이 영상을 편집하며 가족들의 모습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상 속 가족의 모습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선택이 없었다면?

새미가 외도를 알게되며 엄마를 피하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것이고 새미는 자신에게 영화의 재미와 영화촬영의 기회를 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점차 배신감으로 변하게 되며 결국 엄마와의 관계를 끊게 될 것이다.

새미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새미는 아마 언젠가 영화의 각양각색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다시 영화를 그만두게 되었을 것 같다.

만약 새미가 필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쭉 훑어보기만 했다면 미치와 베니 사이에 있었던 그 미묘한 감정은 수많은 다른 장면들 사이에 묻혀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을 거다. 캠핑 영상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나 텐트를 치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처럼 평범한 장면들도 엄청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면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영상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새미는 그중에서 유독 마음에 걸리는 몇몇 장면을 골라내고 그 부분만 반복해서 돌려보고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어 붙이는 편집 작업을 한다. 그렇게 편집이라는 선택을 하고 나니까 원래는 그냥 흩어져 있던 여러 개의 시선과 몸짓들이 하나로 모여서 분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에 찍힌 것 자체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실일 뿐인데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낸 건 결국 새미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편집할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새미가 편집하며 발견한 캠핑 영상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포착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캠핑 현장 자체는 다 함께 놀러 간 평범한 일상에 불과하고 그러나 새미는 필름 속에서 엄마와 삼촌이 있는 장면들을 선별해 편집함으로써 결정적인 사건으로 부각시켜 보여주었다

새미가 당시 현장에서 바로 촬영했을 땐 자신이 찍고자 하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알아차리지 못한 부각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면, 새미가 편집을하며 시선이 더 넓게 확장되고 가려져있던 한 사건이 부각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영상을 편집하지 않았더라면 영상 속의 어머니에게 향한 시선은 없었을 것이고 주인공은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을 것이다. 즉,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라는 문장은 시선이 향하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어떤 대상에 시선을 두고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새미는 엄마의 외도를 바라보고 자신이 찍은 장면을 말 없이 간접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외도 장면의 촬영이 새미의 시선이 되어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이 섞인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는 시선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건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카메라라는 기계는 렌즈 앞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찍는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존재했던 표정이나 몸짓 배경까지 전부 필름에 담긴다. 하지만 그렇게 찍힌 영상 그 자체는 아직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기록일 뿐이다. 캠핑 영상 속에도 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지만 그 많은 순간 중에서 어떤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어떤 부분에서 멈추고 어떤 장면들을 이어 붙일지를 사람이 직접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그게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새미가 편집대 앞에 앉아서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골라내고 베니의 손짓을 놓치지 않고 이어 붙이지 않았다면 그 필름은 그냥 평범하고 즐거웠던 가족 여행의 기록으로만 남았을 거다. 결국 사건이라는 건 현실 속에 원래부터 딱 정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바라보고 편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는 말이 나온 거라고 이해했다.

새미가 편집하며 발견한 캠핑 영상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에서 찍힌 사진 속 무서워하며 눈을 질끈 감고 있으면 정말 스릴넘치는 롤러코스터가 되지만 두팔을 벌리거나 웃으며 타는 사람을 찍으면 나도 타고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나 사례

나는 여행 갔을 때 길을 헤매고 짜증 났던 순간도 많았는데 SNS에는 웃는 사진이랑 예쁜 배경만 골라서 올렸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내 SNS만 보고 완벽하고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했다. 같은 여행인데도 내가 뭘 골라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시위 현장 뉴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위 현장이라도 어떤 언론사는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이나 경찰과의 충돌 장면만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어 보이게 만들었다 다른 언론사는 시위 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절박한 사연과 평화로운 행진 모습을 중심으로 카메라에 담아 사건으로 보도했다 같은 현장이라도 취재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아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중이 인식하는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사건을 각각 뉴스와 SNS에서 접했을 때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 있다. 뉴스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대해 설명했지만 SNS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자극적인 제목과 요소를 사용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이게 했다. 이는 두 매체에서 사용된 전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서 뉴스에서는 장미란 씨의 실종 과정과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사실, 이후 장기간이 지나 발견된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했다. 반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이나 경찰의 대응에 대한 여러 추측이 빠르게 퍼지면서 실종자에 대한 애도,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반발감과 같은 사건임에도 뉴스는 확인된 사실과 수사 상황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SNS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이 함께 확산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였다고 생각한다.

디치 데이의 로건 영상

이 장면은?

주인공은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촬영한 영상을 완성해 강당에 상영합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 일진 로건은 엄청 멋지고 눈부시게 묘사되었고, 영상이 끝난 후 강당의 학생들은 로건에게 열광하지만, 로건 자신은 자신이 실제보다 많이 미화된 모습에 충격과 혼란을 느낍니다.

이 장면은 새미가 학교의 'Ditch day' 행사 촬영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새미는 로건의 모습을 멋있고 영웅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영상 속 로건은 새미를 괴롭히던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멋지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영상을 본 학생들은 로건에게 환호한다.

새미가 영화를 접고 여친의 권유로 다시 카메라를 들게되는데, 다시 찍은 영상이 디치데이 날 영화이다. 평소 새미를 괴롭히고 폭력적이던 로건의 모습과 다르게 영상 속에선 멋있고 영웅스러운 로건의 모습을 담아내어 로건은 친구들의 환호를 받는다.

디치 데이의 로건 영상

만약에 새미의 이런 재구성이 없었다면, 로건은 현실 그대로 모습, 폭력적이고 남을 괴롭하는 모습이 담겼을거고, 친구들은 평소처럼 그저 위협적이고 나쁜 학생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선택이 없었다면?

이 장면에서 새미가 로건을 영웅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찍어야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로건은 그냥 평범한 학생 같은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다. 혹은 채드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미의 선택으로 인해 로건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환호를 받게 된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선택이 없었다면, 로건은 영상에서 눈부시고 화려한 존재가 아닌 해변에서 뛰어노는 평범하거나 다소 거친 인물 정도로 표현되고 영상으로 촬영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로건을 눈부시고 멋진 존재로 보여주는 시선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로 영상속 로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디치 데이의 로건 영상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라는 말은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장면에서 새미는 디치 데이에서 일어난 모든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지 않고, 로건의 운동하는 모습과 멋있어 보이는 순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보여주었다. 실제로 로건은 새미를 괴롭히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새미가 어떤 모습을 선택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관객에게는 멋있고 인기 있는 학생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카메라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는 사람의 시선과 선택을 통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

새미는 로건을 현실과 거리가 먼 영웅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는데, 이것인즉 카메라는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이미지와 사건의 의미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는 말은 사건 자체보다도 누군가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하며 의미를 부여할 때 영화가 보여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는 말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찍는것이 그 자체로 사건이라는 완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의도와 어떤 각도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고 찍는가,담아내는가와 같은 이러한 시선들로써 보여지는 사건들의 모습,내용이 달라지고,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장면에서의 근거로는, 로건은 원래 주인공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일진이지만 주인공이 선택한 시선으로 인해 영상으로 보여지는 로건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과 다른 멋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이 있습니다.

디치 데이의 로건 영상

sns숏폼 영상을 보던 중,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사건이지만 두 숏폼영상이 정말 극의 관계로 대립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나 사례

유명한 카페를 방문했을 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현장 모습 사이의 차이를 체감한 경험입니다.
sns 인스타에서는 감성있는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예쁜 음료,빵들과 함께 여유롭게 웃고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반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푹푹찌는 폭염속에서 긴 줄을 서서 웨이팅하는 지친 사람들 등등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다르게 보인 이유는, 촬영자는 지저분한 바닥, 지친 사람들, 찌푸린 표정을 프레임 밖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운 순간, 본인이 원하는 시선만을 선택한 결과, 해당 장소는 왜곡된 이미지로 재구성된것 입니다. 시선이 닿지 않는 현실에서는, 바닥의 쓰레기, 대기 줄 같은 것을 지워버림으로써, 보는 사람이 실제 현장의 불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을 찍는 개인의 의도,시선이 개입한 결과 좋은 장면만 있고 나머지 사실들은 배제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을 공유했는데 그 중 한 친구가 찍은 사진에서는 친구들끼리 해맑게 웃고 있는 장면이 찍혔고 다른 친구의 사진에서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 친구들이 우물해 보이는 사진이 찍혔었다. 모두가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면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로 보이지만, 표정이 좋지 않은 사진을 보면 재미없는 분위기로 보였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그 속에 담긴 친구들의 어떤 표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존 포드의 지평선 이론

이 장면은?

유명한 감독인 포드와 주인공 새미가 만나 포드가 새미에게 영화에서의 관점의 중요성을 그림의 수평선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수평선이 중간지점보다 낮은 그림 하나 그리고 높은 지점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두 그림을 보여주며 수평선이 중간인 그림은 재미없다, 아래와 위쪽에 있는 것이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며 새미에게 시선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존 포드의 지평선 이론

선택이 없었다면?

이 영화와 장면이 감독의 경험 기반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감독이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화 제작 가치관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았고, 2시간 남짓의 짧은 영상에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그림의 수평선을 통한 관점의 중요성의 간단한 표현이었는데 만약 감독이 이 장면을 명료하거나 와닿지 않고 길고 지루한 영화개념을 가져와 설명했다거나 장면이 실제로는 발생했지만 보여주지 않길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 자체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감독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장면이 전달하는 영화적 관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관객이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존 포드의 지평선 이론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선과 사건의 개념에서는 보지 않았다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영화는 모든 인과관계를 담기엔 비교적 짧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의미하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영화와 이야기를 이루기에 저런 평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시선을 짜고 시선을 조정하는 사람은 감독이므로 영화에서 시선을 통해 사건을 구성하는 감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감독 또한 그러한 영화의 본질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영화 속에서 영화의 본질적인 시선의 중요성을 간단한 예시와 신뢰성있는 인물을 통해 설명해주는 장면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존 포드의 지평선 이론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나 사례

이런 양상은 양면성이 도드라지는 이야기 또는 각자의 입장이 또렷한 이야기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뉴스를 여러개 보지 않는다면 관점이 어느 한 쪽에 치중될 수 있는 것 처럼요. 최근에 한 솟폼에서 본 영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어떤 여성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자 다른 자리의 여성이 계속 통화를 크게 하는 여성을 노려보는 듯하다가 결국 경찰을 부르는 씨씨티비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하면 되지 경찰까지 부를 일인가 했지만 알고보니 통화하던 여성이 현금 액수 등을 자꾸 언급하고 수상한 상자를 갖고 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다른 시민이 그것을 신고하여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시선에서만 보면 사건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오해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 리가 직접 겪은 상황이 아니기에 그곳의 자세한 상황과 분위기를 제한적으로 보이는 시선만큼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에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세대에 자주 접하는 매체들은 우리 의 이목을 끌어야 해서 이렇게 단편적이고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방송들의 악랄한 편집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선한 모습이 숨어있는 것 처럼 이런 매체들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건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러 시선에서 보고 가장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새미의 엄마가 실수로 악보를 밟아 구멍이 난 것을 보고 새미가 그 장면에서 영화의 특수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내용이다 새미는 이 모습을 간순한 실수로 넘지기 않고 방으로 돌아가 촬영한 필름에 직접 구멍을 뚫어 총이 발사될때 총알이 맞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후 흙속에서 폭죽을 터뜨려 총알이 박히는 효과를 만들고 나무판을 밟으면 폭발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얀구한다 또한 피주머니를 만들어서 군인이 쓰러지는 장면까지 표현하며 작은 우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실제 영화 장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새미는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을 배우로 모아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단편 영화를 직접 만듭니다. 영화를 촬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널빤지를 이용해 흙먼지가 솟구치는 지뢰 폭발 효과를 만들고 폭죽을 이용해 총알을 쏘는것같은 특수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카메라 앞에서 진짜 슬픔을 연기하도록 친구를 디렉팅하며 연출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완성된 영화를 본 청중들이 감동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새미는 영화라는 매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나다.

새미의 엄마가 악보를 밟아 상긴 구멍을 그냥 지나 다면 영화의 특수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을거다. 하지만 새미가 이 작은 구멍을 유심히 보고 필름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연결해 총알이 맞는 장면을 표현하는 특수효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촬영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완성도와 표현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사막에서 군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은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나 야외 활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고 여러가지 연출을 하며 인물의 감정을 프레임에 담아내기로 한 새미의 시선이 개입했기에 흙먼지가 전장으로 바뀌고, 어설픈 연기가 전쟁에 참여한 군인처럼 보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을 그저 찍는 것에 그쳤다면 관객의 호응을 얻는 일 역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우를 잃은 인물의 표정을 어떤 각도와 깊이로 보여줄지 고민하고 연출한 새미의 선택이 존재했기 때문에, 허구가 상영관 안 사람들의 마음을 운직이는 실제 사건처럼 바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새미는 스크린을 통해 타인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감독이 아니었을것 같습니다.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는 말이 하나의 상황도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장면에서 새미는 새미의 엄마가 악보를 밟아 생긴 작은 구멍에 주목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실수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새미는 그 구멍의 모양과 효과를 자세히 바라보고 영화의 특수효과로 연결했다 또한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히 설명하지 않고 새미가 아이디어를 얻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어 새미의 시선을 강조한다 따라서 같은 장면이라고 어떤 것을 선택해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지에 따라 관객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는 일상적인 사실도 연출자의 의도를 거쳐야 비로소 관객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카메라 앞의 실제 상황은 군복을 입은 소년들의 놀이와 널빤지로 만든 가짜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새미는 이를 멀리서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폭발 타이밍을 맞추며 전우를 잃은 친구의 표정을 특정 각도로 프레임에 담아냈습니다.
무엇을 포착하고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이 주관적인 시선이 개입하면서, 그저 칭구들의 야외 활동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쟁영화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한 연출과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이 장면은 단순히 장난을 찍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생중계에서는 경기의 흐름과 선수들의 행동을 함께 볼 수 있지만 SNS에 올라온 짧은 영상에서는 특정 순간만 잘려서 전달되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뉴스에서는 기자가 경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장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이 생긴다 결국 같은 경기도 매체가 선택한 장면과 전달 방식에 따라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 축제 댄스 동아리 공연은 숏폼 SNS 영상과 실제 모습에서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15초 영상은 가장 잘한 부분만 관객의 환호성만 교차 편집되어 결점 없이 완벽한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음악이 끊기는 음향 사고와 긴장한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담겨 있어 힘겨운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두 매체에서 공연이 다르게 보인 이유는 프레임의 선택과 편집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SNS는 대중의 시선을 끄는 가장 극적인 순간만을 선택해 맥락을 잘라냈고, 실제는 실수와 여백을 포함한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순간을 선택하고 어떻게 잘라내어 보여주느냐에 따라 같은 무대가 완벽한 무대가 되기도 하고 긴장한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동진 ★★★★★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영화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라본 세상을 보여준다.

즉, 영화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고,
감독이 원하는 것을 담아내고,
감독이 생각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동진 ★★★★★

시선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영화는 감독이 바라본 세상이고,

내 삶은 내가 바라본 세상입니다.
내 삶을 어떤 영화로 만들지는
바로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Next Week Movie
WALL-E(2008)

픽사 장편 애니메이션, 앤드루 스탠튼 감독

- 제81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2009년)
- 롤링 스톤 선정 21세기 100대 영화 47위
- BBC 선정 21세기 100대 영화 29위
- 뉴욕 타임스 선정 21세기 100대 영화 34위
- 제66회 골든 글로브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2009년)
- 제62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2009년)
- 제14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2009년)
- 제35회 새턴상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수상 (2009년)
- 제51회 그래미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2009년)
-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 작품상 수상 (2008년)
-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 작품상 수상 (2008년)
- 보스턴 영화 비평가 협회 작품상 수상 (2008년)
- 휴고상 최우수 드라마틱 프레젠테이션 장편 부문 수상 (2009년)
- 미국 의회도서관 국립영화등재부 영구 보존 영화 선정 (2021년)

디즈니+에서 감상 가능
쿠팡플레이에서 구매 가능

매주, 다음 수업에서 다룰 영화를 미리 본다면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영화와 삶

Thank You



See you next week